

'시민과 함께, 따뜻한 덕진구 만들 것'

양연수 구청장, 현장·복지·안전·생태행정의 구정운영 기본방향 제시 '민원의 해답은 현장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위해 노력할 것 다짐



전주시 덕진구가 민선 7기 전주시정 핵심사업인 전주종합경기장 중심의 덕진권역 뮤지엄벨리 조성사업과 전주역사 신축 및 첫마을 권역 활성화 등 찬란한 전주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제30대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 지난 9일 취임한 양연수 신임덕진구청장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기브리핑을 통해 "덕진구는 교통과 교육, 경제, 문화, 생태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민선7기에는 전주종합경기장과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한 국립미술관 유치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청년혁

신파크 조성,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해소를 위한 명품공원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4대 구정운영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구청장은 "시민과 함께, 따뜻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한 구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한발 빠르게 해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현장행정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행정을 제시했다.

먼저, 현장행정의 경우 덕진구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일 전 직원 현장행정의 날 운영 △과·동장 현장행정 △시민불편제로화 기동순찰반 운영 △'우리 함께 청소해요' 청소 온라인밴드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덕진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절음식 및 말반찬 나눔 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홀로어르신 예쁜 머느리 되어드리기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민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위기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관·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복지대상자와 연계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전수형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따뜻한 덕진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무더운 여름을 열정으로 극복해요'

송천2동 라인댄스, 매주 화·목 주민센터 강당서 열려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라인댄스 교실(회장 서분례, 감사 이미애)회원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열기로 주민센터 강당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송천2동 라인댄스 교실은 2012년 개설된 이래 매주 화,목요일 오전에 열리며 매년 초 수강생 모집시 주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기프로그램이다.

또한,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했고 2018년 송천2동 한마음 음악축제, 전주시 열린시민 강좌 식전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에도 매번 참여, 꾸준히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이미애 송천2동장은 "관내행사가 있을 때 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해주시는 이미애 강사님을 비롯, 모든 라인댄스교실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열정을 유지하여 송천2동의 자랑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애 강사는 "수업시간마다 회원들로부터 감사인 제가 더 에너지를 얻으며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매번 감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란)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7일과 18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다문화가정 등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률상식, 다도예절, 공예품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첫날 김영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법률상식 강의를 했으며 전통공예와 다도예절을 배우고 이어 둘째 날에는 전통음식 전문가인 흥인이 강사와 함께 한국전통 떡 만들기 등을 체험하면서 음식유래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김란 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행사는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마음과 가사와 육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아이와 함께 한국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함께 한국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소 건강을 지킨다"

기광역시 농촌진흥청 낙농과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의 건강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추위 삽입형 건강 정보 수집장치(바이오캡슐)'를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 아중체련공원 체육시설 '새단장'

전주시, 7억원 투입 노후된 축구장 잔디·족구장 바닥재 교체 안전사고 위험 낮추고 건전한 여가생활 도울 것으로 기대

전주시는 총 7억2400만원을 투입,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이 불편했던 아중체련공원의 축구장과 족구장의 시설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중체련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는 6억5000만원을 들여 연

평균 4만7800여명이 이용하는 축구장의 인조잔디(6,798㎡)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했다. 축구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인조잔디가 교체된 후 7년이 경과,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했던 곳이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3700만원을 포함 총 7400만원을 들여 족구장의 기존 우레탄 바닥재를 철거하고 인조

잔디(840㎡)를 설치했다. 족구장 또한 지난 2012년 시설 개장 후 6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했다.

시는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8월 중 새단장한 시설을 재개장해 시민들을 위한 여가체육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아중체련공원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부모교육 수료식 성료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야호학교 다목적실에서 야호학교 참여자 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기 부모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부모교육은 전주시가 청소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전수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번에도 참여자 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호학교에 대해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 교육을 개설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사실 다른 부모교육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하며 즐겁게 진행되는 교육은 처음인 것 같다. 교육 후에도 수료자들이 함께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지난 6월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시간 진행된 야호학교 부모교육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참여한 학부모들은 '열혈수탁분투기'에 대한 독서토론을 통해 교육으로 조금씩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은 각 가정에서 그동안의 배움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부모 코치 선언을 다 함께 낭독하고, 코치 선언문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 부모교육 수료자는 "아들이 내성적이었는데 야호학교에 참여하면서

바쁜 중에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들의 열정과 성의에 박수를 보내며, 시는 교육 수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녀교육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바쁜 중에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들의 열정과 성의에 박수를 보내며, 시는 교육 수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녀교육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누나가 했다고 해..." 음주 뺑소니 3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의 누나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지상 혐의로 서모(30)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9시1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몰던 K3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운전자를 자신의 누나(K3)로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